

전기기술 용어표준화 사업을 추진하며

유석구, 곽희로, 김정훈, 심건보

1. 사전편찬작업은 시대의 요청

현대는 정보화시대이다. Infra structure 의 구축이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업화 되고 있으며, 또 Internet 등에 의하여 세계 및 각 분야는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학회의 조사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전기학회의 논문초록, 학회소개, 행사내용, 국내 및 국제 학술교류 및 회원 인력 관리 등의 내용이 담긴 정보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전기공학분야의 기술 인프라 구성의 기반 조성을 위한 단계로서 기술용어 대사전의 전자사전(CD-ROM)화와 전기기술 정보처리 및 검색을 위한 도구로써, 시소러스(Thesaurus : 용어 어휘집)가 필요하게 된다. 정보화 시대의 특징은 컴퓨터 사이에서의 의사교환으로써 문자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립 국어 연구원에서 1997년 발간을 목표로 6년간 100억원 예산으로 50만 단어를 수록한 '표준국어대사전'의 편찬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고, 북한에서도 '조선말 대사전'이라는 명칭으로 33만 어휘를 수록하여 1992년 3월에 발간한 바 있다. 이외에 각 분야에서도 공익적 성격의 사전이나 용어집의 발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정보화 시대를 이룩하는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분야가 전기·전자 분야로써, 이 분야의 기술 개발 및 이전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다. 그 이유는 산업의 급속한 발달, 팽창 및 전이현상에 기인하여, 과학기술의 거대화, 첨단화 및 복잡화에 따른 기술용어의 생성·소멸이 빈번하여 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시도하는 우리나라는 선진 기술의 습득이 매우 필요하고, 이에 대한 우리말과 글의 일체감이 요청되며, 일체감의 달성이 선진국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분야별로 같은 대상을 다른 용어로 부르고, 특히 학술·기술 연구분야와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기술도입 과정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 서로 의사소통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 서로간의 기술을 습득하는 선진외국이 달랐기 때문이었고, 과거에는 이렇게 새로운 자의적인 외국어를 많이 구사하는 사람이 마치 기술지식이 많은 것처럼 으시대던 때도 있었다. 이렇게 하나의 대상에 대하여 많은

용어를 만들어 사용하게 되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많은 국력이 소모되므로 용어사용에 대한 일체감 형성은 매우 필요한 사업이다.

한편, 지구상에 있는 상당수의 국가들은 자기나라 또는 민족의 말이 없다. 이중 선진 문물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하여 스스로 말과 글을 포기하는 민족도 있다. 그 결과, 산업이나 문화 등의 모든 분야가 예속되어 스스로 속국화되어 선진화 실패라는 결과를 초래한 국가들도 많다. 즉, 진화된 국가와 민족일수록 자기 스스로의 말과 글이 있고, 이를 하나로 만들어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유럽의 강국들이 모두 이에 해당된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에는 '한글'이라는 훌륭한 문자가 있으며, 이를 발전시켜 나갈 책임은 어느 시대에 태어났건 우리민족이라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36년간의 식민지배를 벗어난지 이제 50년이 지나고 있다. 그 당시 우리 민족에게 강요되었던 우리말 버리기와 설익은 선진문화를 일본인들이 행한 교육을 통하여 일부 받아들였고, 그 후 일제시대 청산에 미온적이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우리글로 된 일반적인 용어에 대한 사전만들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특정분야에 잔재가 남아있다. 또한 항상 약소국이었던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중국어, 일제시대에는 일본어, 현재에는 초강국인 미국의 언어인 영어 등을 익힐 수 밖에 없었고, 식자들은 이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고 있다. 그러한 까닭에 한글창제 이후 우리글의 발전은 미미하였던 것이 사실이고, 이 영향으로 어려운 한자, 외국어, 비속어 등도 많이 남아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나라 사랑이 우리말 사랑'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우리는 사전편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는 세계화 시대이다. 세계화는 자기문화를 사랑하고 확고히 한 후에 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말을 확고히 한 후, 외국어 습득에도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선진외국에서도 젊은이에게 모국어 외에 2개 외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결국 국가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소러스사업 및 사전 편찬 사업은 시대의 요청인 것이다.

2. 한국전력으로부터 수주한 기술용어 표준화 용역의 의의

본 학회에서는 지난 1981년 2년간의 작업으로 17,000 단어 용어집을 1차로 편찬하였고, 제2차 편찬사업은 1987년에 한국전기통신공사 지원으로 40,000여 용어집을 가나다순, ABC순 및 약어집으로 나누어 발전된 모습으로 발간한 바 있다. 이와 같은 경험에 의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전력산업 기술 용어 표준화' 용역에 대한전기협회와 함께 본 학회에서도 참가하게 되었다. 이 용역은 다른 기술분야에 비하여 시대조류에 앞서는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광복 50주년!

일제로부터의 국가적인 독립은 이루어졌으나, 아직 기술 용어는 선진외국에 대하여 독립을 못하고 있고, 따라서 과학기술용어에 대한 일체감 형성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전기인들은 기술용어의 표준화를 위하여 힘을 모아야 한다. 개인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주고, 특히 학계나 산업계, 자체 및 상호간의 말과 글의 원활한 유통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기술승계나 이전에도 매우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바이다.

3. 용어 표준화 용역의 내용

본 학회는 대한전기협회와 공동으로 전력산업분야의 용어표준화 작업 및 순화작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선진용어를 중심으로 약 5만 단어의 전력기술 용어집 및 그중 3만 단어를 사전형태로 발간하는 목표로 하고 있다. '96년 2월부터 '99년 7월까지 진행되는 이 과제는 5개 분야로 나누어서 집필, 교열, 검수 작업 순으로 진행되며, 추후 국립국어연구원에 검수도 받을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목 : 전력산업 전기·전자 분야 기술용어 표준화 및 기타 부대 업무
- 기간 : 1996. 2. ~ 1999. 7.
- 구성 :

편찬위원장 유석구 회장	
심의 위원회(7인)	자문 위원회(한글학자)
편찬 위원회 총괄팀(6인)	• 송배전 분과(6인) • 전기기기 분과(6인) • 계측제어 분과(6인) • 고전압 및 전기재료 분과(6인) • 전기 일반 분과(6인)

- 주요 업무 : ㉠ 용어 표준화 - 입력프로그램의 개발, 자료조사, 집필, 교열, 검수
- ㉡ 표준화 개발 및 유지관리 - 표준화 절차서, 집필요강, 공동연구 개발체계
- ㉢ 사전 편찬 체계
- ㉣ 용어 순화 작업

4. 우리 전기인이 할 일

본 학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전기인들은 이 기술용어집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표준화의 필요성이 있는 용어를 학회에 알려주어 보다 알차고 쓸모있는 편찬 사업이 되도록 도와 주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96. 5.20 자로 소속기관에 이미 학회에서 발송된 공문을 참조하시고, 아직 주변에서 이 소식을 접하지 못한 회원을 위하여 공문을 접하였거나 금번 하계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접하신 회원들은 스스로 주변의 홍보도 선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편찬 사업이 끝난 후, 표준화된 용어 사용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우리 전기공학분야 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에도 일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 자 소 개



유석구(劉錫九)

1938년 10월 31일생. 1961년 한양대 공대 전기공학과 졸업. 1980년 동 대학원 전기공학과 졸업(공학). 현재 한양대 공대 전기공학과 교수. 당 학회 회장.



곽희로(郭熙魯)

1942년 3월 1일생. 1967년 서울대 공대 전기공학과 졸업. 1978년 호주 New South Wales대 대학원 전기공학과 졸업(석사). 1986년 중앙대 대학원 전기공학과 졸업(공학). 1967년 한전근무. 1986년 미국 MIT Visiting Scientist. 현재 송일대 공대 전기공학과 교수, 공대학장. 당 학회 조사이사.



김정훈(金正勳)

1955년 9월 13일생. 1978년 서울대 공대 전기공학과 졸업. 1981년 동 대학원 전기공학과 졸업(석사). 1985년 동 대학원 전기공학과 졸업(공학). 1988-1989년 미국 Penn State Univ. 방문교수. 현재 홍익대학교 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및 기획실 부실장. 당 학회 편집 및 조사위원.



심건보(沈建輔)

1957년 2월 1일생. 1980년 홍익대 공대 전기공학과 졸업. 1982년 동 대학원 전기공학과 졸업(석사). 1992년 동 대학원 전기공학과 졸업(공학). 현재 홍익대학교 과학기술연구소 연구원